

현대車, 한국 최초 월드랠리 챔피언십 우승

참가 6년만에 도요타팀 제치고 우승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인 2019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서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팀이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종합 챔피언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9 WRC에서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가 WRC에 참가한 지 6년 만에 이룬 성과다. WRC는 포장과 비포장 도로를 가리지 않고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에서 14~17일 열릴 예정이던 올해 마지막 경기가 산불로 취소되면서 큰 점수 차로 선두를 유지하던 현대 월드랠리팀의 종합 우승이 자동 확정됐다. 제조사 순위는 한 해 열리는 경기의 성적에 따른 누적 점수로 가려지는데, 현대 월드랠리팀은 13번째



현대 월드랠리팀 종합 우승의 주역 티에리 누빌 선수가 스페인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환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경기까지 380점을 기록해 2위 도요타팀의 362점보다 18점이 앞선 상황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현대차는 서킷용 경주차 'i30 N TCR'이 거둔 월드 투어링카 컵(WT

CR) 팀과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에 이어 비포장 노면으로 대표되는 랠리 대회마저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사회공헌 “通하였느냐”



기자 수첩

김 유 진
(파이낸스&마켓부)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각 기업이 갖는 특색에 따라 회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어지면서 그 방법과 종류도 다양하다.

기업들의 사회봉사활동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기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쏟아내는 금액에 따라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규제, 특허 등의 정부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금액만 살펴봐도 이들이 투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총금액은 많게는 수천억에도 넘는다. 비중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1금융권인 은행들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활동 금액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에서 큰 돈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연간 이익

을 감안하면 사회공헌 비중이 크지 않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명품' 회사의 경우 국내 사회공헌 수준이 생색내기엔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돈을 벌며 배당금으로 대부분 가져 간다는 지적이 해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물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는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왠지 왠지 할 수는 없다. 기업 각자의 이익을 위한 기부라고 해도 어렸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결국 일석이조, 윈윈(win-win)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사회공헌과 기부를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배경 뒤에 그들의 연간 순이익 대비 기부금의 비중이 극히 적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사회공헌과 기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접할 땐 씁쓸한 생각이 든다.

결국은 온갖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본이라도 된 것 마냥 홍보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아주 자그마한 제스처만 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소심한 의심이 가지지 않아서

다. /ujin6326@metroseoul.co.kr

에쓰오일, 한달간 60만명에 경품 이벤트

에쓰오일이 '구도일패밀리' 경품대잔치를 연다. 에쓰오일은 한 달간 주유소와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좋은 기름으로 으라차차~ 구도일패밀리 경품대잔치'를 진행한다. 에쓰오일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4만원 이상 주유(2만원 이상 LPG 충전)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60만명에게 ▲황금구도일(순금 75g, 1명) ▲김치냉

장고(5명) ▲라면(30만명) ▲주방세제(30만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주유고객은 보너스카드 적립 후 영수증 하단에서 당첨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에쓰오일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당첨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는 현장에서 지급되는 경품 패키지 속에 '러키 구도일 쿠폰'을 동봉해 추가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보너스 경품 이벤트도 진



에쓰오일에서 이달 13일부터 한 달간 '구도일패밀리 경품대잔치'를 진행한다. /에쓰오일

행된다. 당첨된 고객에게는 라면 한박스·주방세제 선물세트·구도일 캐릭터 상품 등 추가 경품이 제공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음 10월 18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원하는 바가 없으면 겁낼 게 없다. 48년생 체면치레에 집안 경제가 거덜 나겠다. 60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을. 72년생 뒤통스 맞으면 운도 따르다. 84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리는 없으나 내일 또 태양은 뜬다.
- 소** 37년생 꽃이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49년생 같이 사는 자녀의 도움을 고맙게 여겨라. 61년생 한 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안한 법. 73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85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 호랑이** 38년생 작은 먼지로 눈이 매우 아프다. 50년생 후배의 협조로 위기를 모면. 62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될 것이다 외쳐라. 74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감수. 86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
- 토끼** 39년생 오래전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다. 51년생 돈만 써대는 자식도 내 자식이니 어쩌나. 63년생 물도 조심해서 마셔라. 75년생 관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은 금물. 87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 말** 40년생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52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려라. 64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과감한 선택도 무방. 76년생 기다림에 지쳐 목이 아프다. 88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 뱀** 4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5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65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77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89년생 뒤통스 맞으면 가슴 벅찬 행복이 온다.

- 말** 42년생 우물에서 송송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54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제거되니 후련하다. 66년생 자손이 상을 받게 되니 기쁘다. 78년생 물건을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90년생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 양** 43년생 젊어서 모아두지 않아 새삼 아프게 느껴진다. 55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평온한 하루. 67년생 진취적 행동이 타인의 모범이 된다. 79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두라. 91년생 부모님 주책을 증여받을 일이 생긴다.
- 원숭이** 4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자재. 56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68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날. 80년생 자기중심으로부터 생각하면 남들의 질시를 받는다. 92년생 가까운 친구의 모함을 받게 되니 주의하라.
- 닭** 45년생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 57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는 금물. 6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 81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으로 온다. 93년생 무리일지라도 응원하며 나아가라.
- 개** 46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기분 좋은 날. 58년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70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히 노력. 82년생 야근으로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94년생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
- 돼지** 47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59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반드시 망신을 당한다. 71년생 산 좋고 물도 좋는데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83년생 주황색 옷이 행운을 가져온다. 95년생 성실해야 미래가 편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6	4	
7		8	9	4		5	
1	4			7			
3		9		2		5	
	7					9	
	9			8		7	
	4		5		1		
8	5	6					
7				9	5	4	3

	9					2		
8		2			1	3		4
	7			5				6
2				4				5
		7	9		8	6		
	4			2				8
	8			6				9
6		9	8			1		5
3								8

스도쿠 정답

8	7	5	6	8	1	2	9	4
2	6	9	3	7	5	8	1	4
9	8	1	2	5	7	4	6	3
3	2	4	8	9	7	1	5	6
1	5	7	2	6	8	9	4	3
5	9	3	1	4	6	8	7	2
6	1	2	7	5	9	8	3	4
7	9	8	1	2	4	6	5	3

문제 제공= **보스**



김상희의四季

관이 많은 여자의 선택은

살아가면서 바라는 건 마음은 평안하게 재물은 풍족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다. 큰 명예를 원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우선이다. 고난이 이어지는 사람을 보고 흔히들 팔자가 세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말 그대로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조금은 덜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 사주에 관이 많으면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관이 센 여자는 남자에게 통제당하는 걸 힘겨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도 싫어한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 성향으로 추진력 또한 좋은 편이다. 그런 기질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뚜렷한 실적을 올리면서 좋은 평가를 얻는다. 그러나 가정생활은 다르다. 남편과의 사이는 풍파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관이 많은 사주의 기질적 특징이 가정에서도 발휘되면서 남편과 갈등이 생긴다.

부부싸움이 일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별거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혼으로 안 좋은 매듭을 짓기도 한다. 팔자에 나를 극하는 오행 관성이 많으면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풀리곤 한다. 많은 관성을 스스로 당해내지 못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가부장적인 인식이 확고한 남자를 만난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으로 발전한다. 이런 고난을 피하기려면 남자를 만날 때 성격이 유순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을 택해야 한다.

재차 얘기지만 외모보다는 마음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살아가면서 알 수 없지만 예견되는 풍파를 피하기려면 물러나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26호